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성재민*

I. 머리말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가구별로 조사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전소득 중에서도 「친척친지보조금」이라는 세부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는 사적이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적이전, 특히 유산의 상속이 아닌 살아있는 세대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의 흐름은 개별 소비주체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는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이러한 사적이전이 추후 어떤 보상을 바라는 교환(exchange)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올 보상과는 상관없이 아끼는 마음에 이타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도 함께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동기의 분석은 공적이전제도가 확충될 경우 사적이전의 흐름이 바뀐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본고에서는 먼저 KLIPS에서 파악되는 사적이전소득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갖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계층별로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을 분석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적이전을 받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사적이전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seongjm@kli.re.kr).

II. KLIPS에서 나타난 사적이전의 규모와 추이

KLIPS의 소득 관련 문항은 가구용 설문지에 담겨 있다. 조사일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조사하는 것이 기본 틀로 되어 있다. 그러나 1차년도 조사에서는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질문해 외환위기 전과 후에 애매하게 조사시점이 걸쳐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1차년도에는 이전소득을 한 달 평균액으로 조사하였으나, 2차년도부터는 지난 해 1년간 발생총액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1차년도의 이전소득은 제외하고 분석할 것이다.¹⁾

문헌에 따라 사적이전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연구의 초점이나 자료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사적이전이 측정되는데, 다른 가구에 속한 친족들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만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가구에 속한 개인들 중 부모와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이를테면 조부모, 같이 사는 성인자녀와 오간 현금 또는 현물을 사적이전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의 사적이전은 KLIPS의 설문구성에 따라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나 자녀, 친척·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비주기적으로 많은 돈이 일시에 오가는 증여나 상속은 여기서 제외된다. 대체로 사적이전에 대한 문헌은 상속은 별도로 다루며, 살아 있는 사람간의 현금 또는 현물이전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증여는 사적이전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겠지만,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서 증여와 같이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영향으로 현재 KLIPS 설문에서는 증여 및 상속을 하나의 문항으로 질문해 구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체로 주기적으로 발생한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를 포함한 친척·친지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을 사적이전으로 보고 분석할 것이다.

<표 1>은 KLIPS 가구소득의 연도별 평균 추이를 요약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85%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같은 자산소득이 대략 6~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소득은 크게 보아 사회보험소득, 사회보험 이외의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세 가지를 모두 합쳐보면 대략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소득 중에서는 사적이전이 여타의 이전소득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약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1) KLIPS 소득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노동리뷰 지난호에 실린 「KLIPS의 소득자료 특성」 참조.

<표 1> KLIPS 항목별 가구 평균소득 추이

(단위 : 만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근로소득	1,569 (85.1)	1,709 (86.8)	1,855 (88.3)	2,213 (84.8)	2,335 (85.2)	2,518 (86.1)
금융소득	42 (2.3)	67 (3.4)	43 (2.0)	45 (1.7)	36 (1.3)	33 (1.1)
부동산소득	80 (4.3)	54 (2.8)	66 (3.1)	175 (6.7)	151 (5.5)	152 (5.2)
사회보험소득	23 (1.2)	29 (1.5)	33 (1.6)	54 (2.1)	53 (1.9)	61 (2.1)
공적이전소득	6 (0.3)	9 (0.4)	13 (0.6)	24 (0.9)	14 (0.5)	15 (0.5)
사적이전소득	45 (2.4)	39 (2.0)	43 (2.1)	60 (2.3)	82 (3.0)	79 (2.7)
기타소득	78 (4.2)	62 (3.1)	48 (2.3)	39 (1.5)	70 (2.6)	66 (2.3)
전 체	1,843(100.0)	1,969(100.0)	2,102(100.0)	2,610(100.0)	2,741(100.0)	2,923(100.0)

주 : 당해연도 분가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Ⅲ. 사적이전을 받는 가구의 특성

이와 같이 볼 때, 사적이전소득이 총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상은 가구소득 분위별로 나누어보면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해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8%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사적이전소득은 26.9%로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소득과 기타 공적이전소득을 합치면 13.4%로 전체 이전소득이 1분위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3%에 해당된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전체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8%로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적이전은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가구소득 분위별 각 소득원천 비중(2003년 소득 기준)

(단위 : %)

	근로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 소득	기타 소득	전 체
1분위	53.8	2.5	3.1	4.0	9.4	26.9	0.2	100.0
2분위	85.5	1.0	2.1	4.9	1.0	4.9	0.5	100.0
3분위	91.6	0.8	2.1	3.1	0.1	1.6	0.5	100.0
4분위	93.6	0.7	2.0	1.9	0.1	1.2	0.5	100.0
5분위	82.9	1.4	8.6	1.1	0.1	1.8	4.2	100.0

사적이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를 시도하였다. <표 3>에서 집중계수는 각 소득원천이 불평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요약하는 지표이며, 뒀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상대적 기여도는 지니계수 크기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절대적 기여도는 모두 합칠 경우 지니계수가 되는 값이다.

집중계수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만약 가난한 자에게 소득이 모두 돌아갔다면 -1, 부자에게 모든 소득이 모두 돌아갔다면 1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해당 소득원천은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부동산소득은 불평등을 매우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이 낮은 쪽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적이전소득은 0이나 다름없는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골고루 발생하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도 거의 0이나 다름없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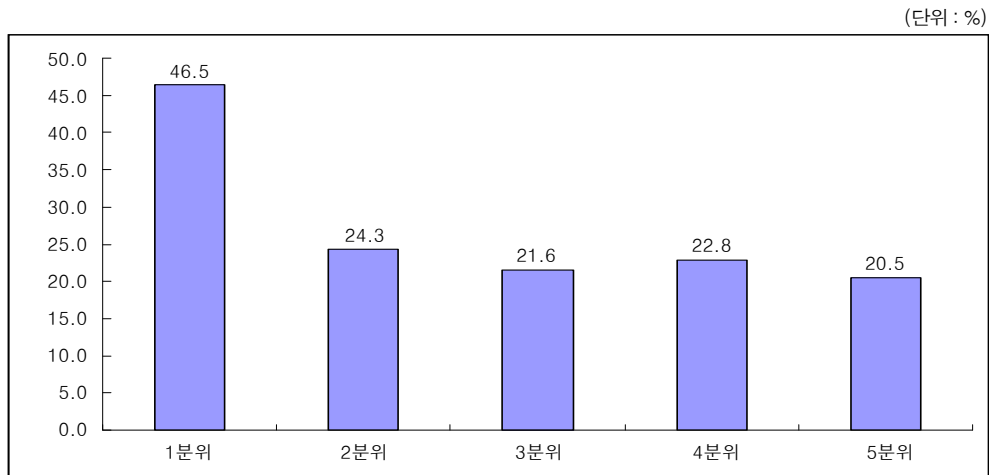
사적이전소득이 주로 낮은 소득계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표 2>의 분석과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적이전소득의 발생빈도를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이상한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사적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의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에 있는 가구는 절반 가까이 사적이전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대략 1/4에서 1/5 정도는 사적이전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이전소득이 특히 가난한 가정에서 중요한 소득 원천이긴 하지만, 다른 계층에서도 소득의 사적인 이전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주의 취업상태별로 보면 직장을 갖고 있는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가구에서 사적이전이 2배 가량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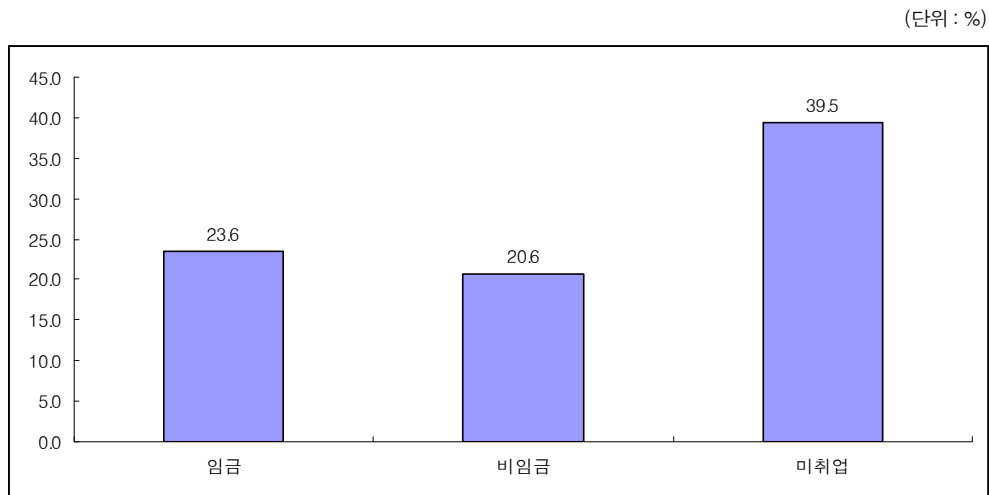
<표 3> 각 소득원천별 지니계수에 대한 기여(2003년 소득 기준)

소득원천	집중계수	뒀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지니계수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
근로소득	0.439794	0.861352	0.853084	0.378817
금융소득	0.495901	0.011375	0.012703	0.005641
부동산소득	0.752335	0.051976	0.088059	0.039103
사회보험소득	0.15356	0.020824	0.007201	0.003198
공적이전소득	-0.43951	0.004961	-0.00491	-0.00218
사적이전소득	0.004057	0.02694	0.000246	0.000109
기타소득	0.858016	0.022575	0.043619	0.019369

[그림 1] 소득분위별 사적이전을 받은 가구의 비중



[그림 2] 가구주의 취업상태별 사적이전을 받은 가구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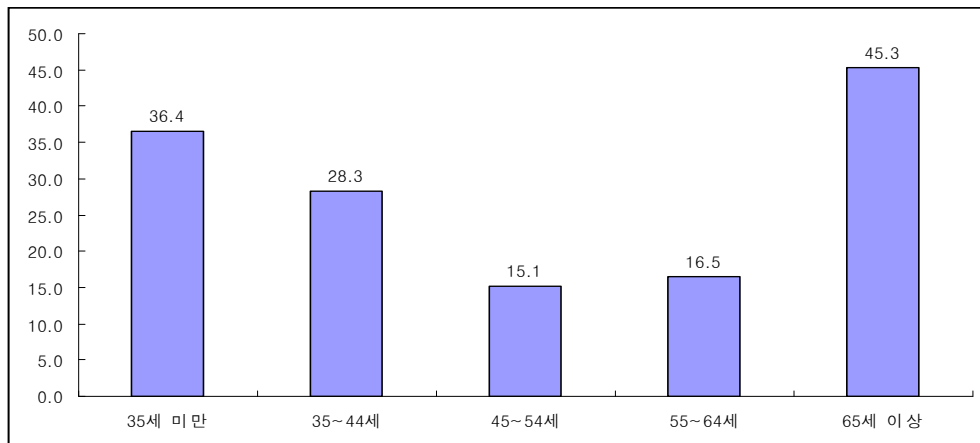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적은 쪽과 많은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한창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거나 아직 성인이지만 혼인은 하지 않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40대 중반에서 60대 전반의 경우 사적이전 발생이 적었다(그림 3 참조).

가구원수별로 보면, 성인이 되었거나 결혼을 해서 독립했거나,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남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해당될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보다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사적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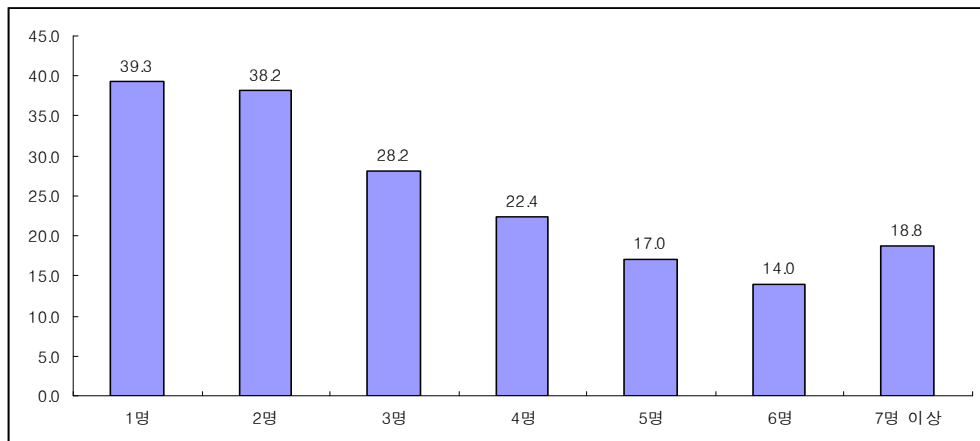
[그림 3] 가구주의 연령별 사적이전을 받은 가구의 비중

(단위 : %)



[그림 4] 가구원수별 사적이전을 받은 가구의 비중

(단위 : %)



IV. 사적이전의 동기

상기에서의 분석을 통해 사적이전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적이전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크게 이타적(altruistic) 동기와 교환(exchange) 동기를

구분해 왔다. 이타적 동기란 순수하게 사적이전을 받을 대상을 줄 사람이 걱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는 것을 말하며, 교환 동기란 걱정도 하지만, 준만큼 나중에 받을 대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는 논리이다.

Cox(1987)는 사적이전을 주는 쪽이 받는 쪽의 효용증진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효용함수를 가정해 각 동기에 따라 어떻게 받는 쪽의 현재의 가구소득과 공적이전에 대해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도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교환 동기하에서는 사적이전을 받는 쪽의 현재의 소득 증가는 미래에 반대급부를 받을 가능성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사적이전액이 증가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이타적 동기하에서는 사적이전을 받는 쪽의 현재 소득 감소는 사적이전을 줄 유인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교환동기하에 주로 사적이전이 발생한다면 받는 쪽의 현재 가구소득과 사적이전액수의 관계는 (+)로 나타나고, 이타적 동기하에 주로 발생한다면 받는 쪽의 현재 가구소득과 사적이전액수 사이에는 (-)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사적이전 동기의 분석이 중요한 것은 학문적 관심 때문만은 아니다.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교환 동기하에서는 받는 쪽의 현재의 소득 증가가 미래 반대급부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설령 공적이전을 이 가구가 받게 되더라도 사적이전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타적 동기하에 사적 이전이 주로 이루어지던 곳에 공적이전제도가 생길 경우 기존의 사적 이전을 새로 생긴 공적이전이 구축(crowding-out)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인해 공적이전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측정할 경우 이타적 동기가 지배적인 경우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공적이전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사적이전의 변화를 함께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KLIPS 7차년도와 6차년도 자료를 연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적이전이 발생하는 동기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의 미관측 특성인데, 해당 가구의 가풍(家風) 같은 것이 이 미관측 특성에 해당될 것이다. 만약, 가풍이 “성실하고, 돕고 살자” 같은 것이라면 가풍은 가구소득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또한 사적이전과도 관련이 있으나 변수로는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가구소득은 내생변수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제대로 가구소득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사적이전의 동기분석을 위해 보통 Heckman 식의 선택편의 교정방법이 활용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가구의 미관측특성과 가구소득이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Wooldridge가 1995년에 제안한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 방법은 가구소득과 관측할 수 없는 가구의 특성이 서로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Heckman 식의 선택편

의 모형에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는 패널분석방법론을 통합시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관측 특성과 설명변수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방법은 일찍이 함수적 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패널고정효과 분석이 불가능한 프라빗 모형에서 Chamberlain에 의해 활용된 바 있다. Chamberlain 모형의 경우 설명변수의 기대값과 미관측 특성의 선형관계를 가정한 반면, 여기서는 설명변수 그 자체와 미관측 특성의 선형관계를 가정한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모든 기의 설명변수가 모두 분석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복잡성이 있기는 하지만, 추정 자체는 2단계 OLS에 설명변수로 투입되는 Mills Ratio를 위한 분산교정과 정만 제외하면 그리 복잡하지 않고, 모수적 방법이므로 계수에 대한 해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4>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동기를 식별하기 위해 중요한 가구소득의 경우 계수값은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계수가 (-)여서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볼 때, 사적이전의 동기가 우리나라의 경우 이타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보다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사적이전액 회귀분석 결과(6, 7차년도 자료 연결패널)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	6.7726	0.5158
가구주 연령	-0.0428	0.0196
가구주 연령 제곱	0.0003	0.0002
가구주 성별	0.006	0.3109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여부	0.3531	0.0885
가구주 고졸 여부	0.0663	0.0728
광역시 거주 여부	0.1379	0.0554
가구소득의 로그값(사적이전 제외)	-0.0596	0.0723
공적이전소득의 로그값	-0.0398	0.0378
연령*가구소득	0.0003	0.0012
연령*성별	0.0031	0.0065
가구원수	0.2679	0.1406
15세 이하 가구원수	-0.2261	0.2323
60세 이상 가구원수	0.2509	0.3034
임금근로(가구주)	-0.2142	0.1937
자영업(가구주)	-0.1232	0.2009
Inverse Mills Ratio I	-0.014	0.2469
Inverse Mills Ratio II	-0.1844	0.2906

주: 각 기의 모든 설명변수가 분석에 이용되었지만, 결과는 보고하지 않았음.

V. 맺음말

지금까지 KLIPS에서 조사된 사적이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사적이전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받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가구소득의 1/4 정도를 사적이전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적이전은 이타적인 이유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공적이전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 사적이전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KL**

<참고문헌>

- 강성진·전형준(1999),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쪽.
-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pp.508~546.
- Wooldridge, J. M.(1995), “Selection Corrections for Panel Data Models under Conditional Mean Independence Assump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68, pp.115~132.